

영암 삼포지구 2단계 개발 속도낸다

전남도, 목포도시가스 투자 유치 튜닝·재생에너지 테마파크 조성

전남도가 영암 기업도시 삼포지구 2단계 개발을 위해 신규 투자자로 목포도시가스 주식회사를 유치했다. 목포도시가스는 전남도, 전남개발공사와 함께 삼포지구 2단계 개발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목포도시가스는 지난 1월부터 코리아오토밸리오피레이션 지분 인수를 추진, 민간지분 50.1%를 확보해 6월 24일 코리아오토밸리오피레이션 이사회에서 최대 주주 지위를 승인받았다. 목포도시가스는 지난 2019년 삼포지

구 개발 시행자인 코리아오토밸리오피레이션 주식회사(KAVO)에 투자의향서를 제출한 바 있다.

목포도시가스는 앞으로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 육성을 위한 산업단지 개발 등 삼포지구 2단계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전남도는 올해 전남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친환경·자율주행 자동차 튜닝부품 고성능화, 지능형 부품개발 및 기업 지원 등에 국비 96억원을 확보, 기술개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 삼포지구에 입주한 한국자동차연구원과 함께 튜닝자동차의 주행 안전성과 성능 검증을 통해 규제를 완화하고 튜닝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친환경 자동차 튜닝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올 하반기 추진할 계획이다.

현재 삼포지구는 1단계 사업으로 조성된 국제자

동차경주장에서 국내외 모터스포츠 대회를 연중 30여회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 말 준공을 목표로 레저스포츠파크와 자동차복합문화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목포도시가스는 1982년 설립 이후 전남 서부지역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에너지 전문 향토기업이다.

강상구 전남도 기업도시담당관은 "1단계 사업 이후 정제된 삼포지구 개발사업이 신규투자자의 참여로 개발동력을 확보하게 됐다"며 "삼포지구를 미래형 자동차 튜닝산업지구로 육성하는 것은 물론 목포도시가스의 에너지 전문성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테마파크로 조성하는 등 기업도시를 성공적으로 개발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 기자 chad0l@kwangju.co.kr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시민운동본부)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정치권에 공공기관 추가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영호남 시민단체 “공공기관 추가 이전 촉구”

광주·전남, 대구, 부산지역 등 영·호남 시민단체가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공공기관 추가 이전 및 국가균형발전을 촉구했다.

80여개 영·호남 시민단체로 구성된 공공기관 추가이전 및 국가균형발전 촉구 영·호남시민운동본부(이하 시민운동본부)는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방을 소외시킨 불균형 발전을 더는 좌시할 수 없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시민운동본부는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규정하고 있고, 정부와 여당은 공

공기관 추가이전을 공언해왔다"며 "정부는 약속한 대로 공공기관 추가 이전을 추진하고, 공공기관이 투자하거나 출자한 기업도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정부는 임기 내에 공공기관 이전 추진 계획을 공식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며 "여야 각 정당도 공공기관 추가 이전과 함께 기업을 지방으로 이전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라"고 촉구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7일 오후 광주시의회에서 열린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에서 김용집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이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선언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의회 실현”

광주시의회 개원30주년 선포식 전남도의회는 8일 기념식 가져

광주시의회와 전남도의회가 잇따라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민의 대변과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에 앞장 설 것을 다짐했다.

광주시의회(의장 김용집)는 7일 의회 개원 30주년 기념식과 함께 새로운 지방자치시대를 열기 위한 비전선언식을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전·현직 시의원들과 각 기관 대표, 시민사회단체, 시민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방역 수칙 준수를 위해 최소한의 인원만으로 제한했다.

또한, 시의회는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실시간으로 방영, 비대면 참여가 가능하도록 했다. 시의회는 이날 비전 선포식을 통해 지역 민주주의를 선도하는 일꾼으로서 '시민에게 주권을' '시민에

게 행복을' '시민과 함께 미래로' 라는 비전을 제시했다. 또한, 민의 대변과 성숙한 민주주의 구현을 위해 매진할 것을 다짐했다. 이밖에 의회 비전과 실천상을 구현하기 위해 ▲사회정의 ▲상호존중 ▲다양성 ▲성실성 ▲정직성의 5가지 핵심가치가 어우러지는 조화와 균형의 의정운영을 이뤄가겠다는 의지도 다졌다.

김용집 의장은 "지나온 30년의 자치역의 성과를 바탕으로 시민에게 주권을 돌려주는 민주주의의 기본에 충실한 의회, 시민의 행복을 쫓아주는 의회, 시민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선진의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시의회는 지난 1986년 광주가 직할시로 승격되어 광역자치단체 지위를 얻은 뒤 5년 만인 1991년에 제1대 직할시 의원 선거를 통해 23명의 원을 선출하고 같은 해 7월 8일 개원했다.

전남도의회(의장 김한중)는 8일 오후 2시 도청 김대중 강당에서 개원 30주년 기념식을 연다. 이

날 행사에서 도의회는 걸어온 길을 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한 비전을 제시할 예정이다. 도청 윤선도홀에서는 부활 후 30년간 도민과 함께한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기념사진전을 연다. 기념식은 코로나 19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가운데 도민과, 역대 전남도의회 의장, 국회의원, 시군의회 의장, 전남도의원 등이 참석한다. 개원 30주년 기념행사는 도의회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다.

전남도의회는 1952년 5월 20일 개원했으나 5·16 쿠데타로 집권한 박정희 독재정권이 지방의회 해산, 자치단체장 임명제를 시행하면서 지방자치 기능이 중단됐다. 이후 5·18광주민중항쟁 등 민주화운동이 잇따르면서 1987년 대통령 직선제 시행, 1991년 '지방자치제' 부활을 가져왔다. 전남도의회 역시 광주시와 같은 1991년 7월 8일 개원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광주시, 근골격계 맞춤형 의료산업 플랫폼 구축

‘융합기술’ 공모사업 선정

광주시가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근골격계 맞춤형 생체의료소재부품산업 지원 플랫폼 구축에 나선다. 광주시는 산업통상자원부가 공모한 2021년 '임상데이터 기반 근골격계 인체모사 융합기술 지원사업'에 최종 선정됐다고 7일 밝혔다.

이 사업을 통해 CT, MRI 등 임상데이터를 기반으로 3D프린팅을 활용, 개인 근골격계와 동일한 3차원 형상의 정밀 인공뼈·관절·의료보조용품 등 인체 대체용 생체의료소재부품을 제품화할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한다.

또한, 글로벌 기업 역량강화 및 해외시장 진출,

전문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게 된다. 사업비는 2025년까지 총 128억원으로 국비 80억원, 시비 35억원, 민간 부담 13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사업 주관은 전남대학교병원이 맡고, 전남대학교 산학협력단, 남부대학교 산학협력단 등 기관이 참여해 분야별 업무를 수행한다.

전남대학교병원은 3D프린팅 의료기기 관련한 산학병연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의료진이 3D프린팅 의료기기 개발에 참여하는 병원 중심의 사업화 모델을 마련할 계획이다.

남부대학교는 3D프린팅 의료기기 제품화를 위한 제조 공정기술 및 전문가 연계 품질 개선, 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등을 지원한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 정성배 교수 내정

1년 넘게 공석이었던 광주복지연구원 초대 원장 후보자로 조선대학교 정성배 교수가 내정됐다.

원장 후보자로 내정된 정 교수는 오는 19일 광주시의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정 교수는 이번 3차 공모 절차에서 7명의 응모자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사회복지기관 경영 경력과 다수의 복지 분야 연구 실적, 복지 현장 경험 등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광주복지재단의 후신인 광주복지연구원은 지난해 7월 개원한 광주사회서비스원과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복지 정책 연구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출범한 시 출자·출연 기관이다. 지난해 2월 전신인 광주복지재단 신일섭 대표가 사직하고 공석이 된 지 1년 넘게 시 행정부시장 대행 체제로 운영 중이다. 그동안 2차례 공모를 냈으나 적격자를 찾지 못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자산 2,000억 달성 기념 경품 대잔치

■응모기간: 2021년 4월 15일 ~ 9월 30일 ■추첨일자: 2021년 10월 20일

1등 스타일러

2등 노트북

3등 음식물처리기

4등 로봇청소기

5등 공기청정기

응모권 지급 조건

- 출자금 신규 및 추가 10만원 입금
- 정기예금 신규
- 정기적금 신규
- 대출 신규 (범위내, 공제약관 제외)
- 공제 상품 가입 (생명, 화재)
- 체크카드 신규 발급 (영수증 제출)
- 자동이체 신규
- 가맹점 결제계좌 신규

2020년 출자금

3.0% 배당

정기적금

1년 3.0%

자신만만자유예탁금

하루만 맡겨도 최고 1.5%

담보대출특판(100억)

최대한도 80% 최저이율 3.5%

※상기 이미지는 실제상품과 다를 수 있으며, 제세공과금은 본인 부담입니다. (중복당첨 시 최상위 경품 1개에 한하여 지급함)



MG금남새마을금고

본점 T.223-8007(대인동 한미쇼핑 1층) 총장지점 T.223-7217(총장로5가 입구)